

문화일보 사회

기사 게재 일자 : 2015년 09월 25일

‘신촌 도시재생’ 대학서 강의 서대문 4개대학 10개학과 참여... 주민과 공개 수업 활성화 모색

김윤립기자 bestman@munhwa.com

서울 서대문구가 도시재생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지역 소재 대학, 대학생들과 손을 맞잡았다.

구는 신촌지역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와 활성화를 위해 이번 2015학년도 2학기에 지역 내 4개 대학 10개 학과에서 학생들의 지역조사와 실습 활동을 포함하는 강의를 개설, 운영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구는 도시재생사업을 비롯한 지역 문제를 대학의 전문성과 참신한 시선으로 해결하기 위해 올 들어 ‘신촌 지역 등 활성화를 위한 대학 연계사업’을 신규 추진해 오고 있다.



▲ 최근 서울 신촌 연세대 제3공학관 강의실에서 도시공학과 학생들이 도시재생과 관련한 강의를 듣고 있다. 서대문구 제공

구는 이번 2학기 ‘대학 연계사업’ 공모를 지난 9일까지 진행한 결과 4개 대학 8개 학과에서 신청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고 밝혔다. 공모 신청을 하지 않고 자체 진행하는 2개 학과까지 포함하면 총 10개 학과에서 신촌 및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연세대 5개, 이화여대 3개, 추계예대와 명지전문대 각 1개 등 모두 10개 강의에 학생 225명이 참여하고 있다. 학부 강의가 6개, 대학원 강의가 4개다.

해당 학과에서는 신촌 주민과 함께하는 야외 공개수업을 열고, 학생들은 지역자원 조사, 주민 인터뷰, 지역활동가 연계 등을 통한 실습으로 지역 활성화 방안을 기획한다.

이번 대학 연계사업 참여를 신청한 학과는 선정될 경우 300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게 되는데, 구는 심사를 거쳐 가능한 한 모든 학과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구는 지역연계 수업 10개 학과 교수 및 학생들 간 네트워킹을 확대하고, 학기 말에는 10개 학과가 합동으로 신촌지역 주민, 상인 등과 함께 2학기 활동성과를 공유하고 토론하는 ‘타운홀 미팅’을 개최할 계획이다.

김윤립 기자 bestman@munhwa.com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